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7월)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7월)은 한여름의 장마와 폭염, 수련회와 휴가가 겹치는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묶어 주는 기도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일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가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7월의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다시 정렬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문을 나눕니다. 제헌절을 지나며 이 땅의 자유와 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 지친 이웃을 더 세심히 살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7월)1 하반기 시작을 여는 대표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주님, 7월의 문턱에서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상반기를 지나며 기뻐던 날도 있었고, 속상하고 무너졌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려 주옵소서. 주님, 지나온 반년을 돌아봅니다. 잘한 것만 붙들어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와 후회만 붙들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고 지냈던 감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솟게 하옵소서. 작은 평안 하나도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바쁨이 신앙을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계획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멈추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와 학업을 붙들어서 주옵소서. 성과와 결과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몰아붙이는 세상 속에서 정직과 성실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결정들 앞에서 성급함을 멈추게 하시고, 기도로 방향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낙심한 마음에는 새 힘을, 지친 몸에는 쉼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기쁨을 더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비교를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로 다시 모이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 됨을 지키게 하시며, 새가족과 오래된 성도가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새로운 반년을 주님의 뜻 안에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작은 순종이 모여 열매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날에도 주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고백을 한 주간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7월)2 장마와 재난 앞에서 드리는 대표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주님, 7월이면 비가 잦고 날씨가 급변하여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집중호우와 침수, 산사태 같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소서. 주님, 먼저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장과 길 위에서 일하는 분들, 밤낮으로 재난을 대비하는 공무원과 구조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보호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위험을 미리 살필 지혜를 주옵소서. 지쳐 있는 손과 마음을 새 힘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임시 거처에서 불편함을 견디는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도움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오래 남지 않게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능한 도움을 실제로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자연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편리함만을 붙들고 창조세계를 함부로 대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땅과 물을 지키는 청지기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작은 절제와 돌봄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닦아주기보다 함께 살 길을 찾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안이 커질 때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되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위기의 때에 더 깊은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평안을 심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두려움을 잠재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7월)3 여름성경학교·수련회를 위한 대표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히브리서 4:12)

주님, 7월은 다음세대가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많은 달입니다.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캠프와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교사들과 학생들,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부담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준비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채우실 것을 믿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참여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스마트폰과 빠른 자극에 익숙한 세대가 말씀 앞에 조용히 앉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말씀 한 절이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친구 관계로 힘든 아이들,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동과 물놀이, 야외 활동 가운데 사고가 없게 하시고, 폭염과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세밀하게 살피게 하시고, 아이들도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모들의 마음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게 하옵소서.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식탁과 잠자리의 짧은 시간에도 주님 이야기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가정과 손잡고 아이들을 세워 가게 하옵소서. 주님, 올여름의 사역을 통해 다음세대의 마음에 복음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한 명의 아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7월)4 가정의 휴가와 쉼을 위한 대표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28)

주님, 7월에는 휴가 계획을 세우거나 이미 길 위에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쉼이 필요하지만, 쉼마저도 ‘잘 쉬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구합니다. 마음의 짐이 내려지는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멀어진 부부와 부모 자녀 사이에 주님의 온유함을 부어 주옵소서.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피로를 이해하는 여유를 주옵소서. 함께 웃는 시간이 다시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를 꿈꾸기 어려운 이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비교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작은 산책과 짧은 대화, 조용한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에서 오게 하옵소서. 주님, 쉼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옵소서. 미뤄 두었던 회개가 있다면 솔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풀어 내게 하옵소서. 휴가 중에도 예배의 리듬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한 이동을 허락하옵소서. 쉬는 동안 마음이 더 무거워지지 않게 하시고,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참된 안식을 약속하신 주님을 붙들입니다. 우리의 쉼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7월)5 청년·직장·학업의 길을 위한 대표기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5)

주님, 7월은 상반기의 결과가 드러나고 하반기의 계획이 움직이는 때입니다. 취업과 이직, 진로와 시험, 프로젝트와 실적 앞에서 많은 이들이 긴장합니다. 변화가 빠른 시대와 새로운 기술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이 길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명철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반복되는 낙방을 겪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확신하게 하옵소서. 준비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직장인들의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불확실 속에서도 마음이 메말라지지 않게 하시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과 태도를 지켜 주옵소서. 불의한 요구 앞에서는 지혜롭게 거절할 담대함을 주시고, 정직하게 일하는 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방학의 계획을 세울 때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아이의 속도와 성향을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공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배움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이 불안한 밤에는 주님의 평안으로 잠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선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문이 닫힐 때는 주님의 보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문이 열릴 때는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결정 하나에도 주님을 찾는 습관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불확실한 내일 속에서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7월)6 나라와 세계, 교회의 사명을 위한 대표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33)

주님, 우리 눈앞의 삶이 급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증언하는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7월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 세계와 교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책임으로 길을 열게 하옵소서. 약한 이들의 목소리가 제도 속에 반영되게 하시고, 일자리와 주거, 돌봄의 문제로 신음하는 가정들이 숨을 돌릴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 속에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난민과 어린이, 무고한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평화를 이루는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증오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지 않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로 바뀌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화려함보다 거룩을, 숫자보다 진실을 선택하게 하시고, 삶의 증거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리더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갈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역 교회들이 연합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선교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족과 직장, 학교와 이웃 가운데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를 주옵소서. 말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보다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결국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한 만큼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힘이 되게 하시며, 아래 예배 자료도 함께 참고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